

대한불교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 16년만에 '마스코트' 탄생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이하 대불어)가 달라지고 있다. 대불어는 마스코트와 로고, 심볼을 제작하고 회원들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새책발자의 눈높이에 맞춘 포교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 만든 마스코트와 심볼은 어린이들의 천진하고 맑은 모습을 연꽃의 이미지와 잘 부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볼과 함께 사용될 로고도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글꼴이기 때문에 새책발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불어는 또 이번에 만든 캐릭터를 활용한 불교용품도 제작·보급해 불교에 친숙하지 않은 어린이들도 끌어들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교 전략도 함께 짜 놓았다. 이외에도 대불어가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플래쉬 애니메이션(웹상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클레이 애니메이션(변형 가능한 점토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개발 역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포교 교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내년 상반기중 비디오 테잎으로 제작해 회원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 로고·심볼·애니메이션도 캐릭터 활용 불교용품 제작 새책발자 눈높이 포교 기대

대불어의 이번 변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불어는 그동안 소식지지만 전하던 전국 어린이법회의 다양한 정보들을 4백여명의 개인 회원들에게 수시로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해 회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불교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소식지 '연꽃'도 회원들의 동정이나 활동소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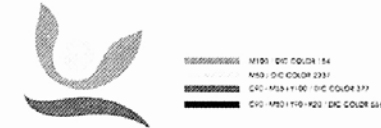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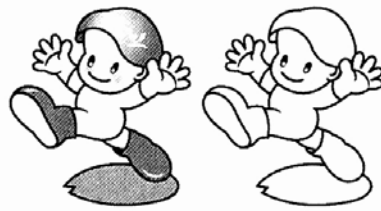
늘려 안방에서도 회원들간에 정보 공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수안 대불어 사무국장은 "창립 16년만에 통일된 마스코트를 갖게 된 것은 어린이 포교의 활력소로 작용될 것"이라며 "캐릭터 완성, 새로운 방법의 인터넷 포교 등을 계기로 어린이 포교의 새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불어 회장 정여 스님은 "급속하게 변하는 어린이 문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포교 전략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을 활용한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불어는 10~11일 경주온천 관광호텔에서 '흔들리지 않는 초발심'으로 정진하는 지도자'를 주제로 '제32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김주일·천미희 기자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개발한 마스코트(사진 위·가운데)와 로고.

# 주부 실행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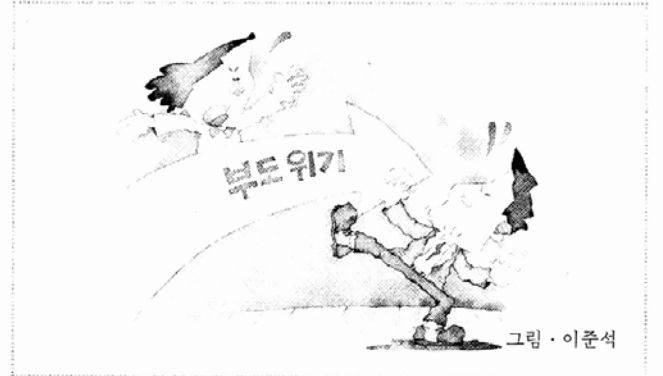
## 돌고 돌아 찾은 불법

내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는 어린 내가 보기에 지극 정성이라 생각할 정도로 절을 많이 찾았다. 절에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목욕재계는 물론이고 소고기나 닭고기 등 육류를 먹는 일도 삼가셨다. 또 함부로 구입을 짓거나 사탕 생감을 하는 것조차도 조심하려고 노력하셨다. 이런 불심같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덕분인지 절은 나에게 항상 외경의 대상이며 의지처였다. 불교에 대한 인연은 결혼을 해서도 계속되었다. 시어머니께서도 친정어머니 못지않은 독실한 불자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편이 이와 다를 바 없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부처님을 찾는 정성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비할 데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때까지 큰 어

신 신통력 있고 앞일을 잘 예견한다는 유명한 무당들을 찾아다녔다. 그때시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무당들의 얘기가 절대적인 진리처럼 들렸고, 부처와 그 등 그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2백만원 을 들어 조상을 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틀림없이 나아진다고 했던 남편의 사업은 파산 직전까지 치달았다. 나는 이 점집에도 효험을 못보면 수소문해 다른 점집으로 옮기는 등 미신 중독증에 빠졌고, 급기야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

시정갔다 집에 돌아오다 정신을 잃고 길에서 쓰러져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



그림·이준석

## 이곳 저곳 무당 찾다 건강 잃어

려움 없이 지내온 탓에 그저 시어머니 뒤 에만 졸졸 따라 다니는 나일런? 붙자였다. 법당에 가서 절을 할 때면 영성한 자세 때문에 남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아 속스럽고 부담스럽기 까지 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 자 절에 다니는 횡수가 뜰해지고 어느 사이엔가 부처님오신날만 형식적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종교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때만이 소중하고 필요함을 느끼는 것일까. 평탄한 생활을 하던 나에게도 어려움이 닥쳤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남편의 사업은 97년 경제회복의 여파를 순조롭게 피해가지 못했다. 남편 사업은 96년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경제회복까지 겹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한달내에 자금회전을 못하면 부도가 날 절박한 상황이었다.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자 나는 절 대

가기 까지 했다. 평생을 풍족하게 살았던 지라 갑자기 붙어닥친 경제적 어려움은 나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수많은 근심으로 머릿속이 채워진 내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다. 이런 나에게 하루는 남편이 함께 갈때가 있다며 경산에 있는 자비사로 데려갔다.

법문시간에 주지스님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도 전생에 지은 업(業)의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현실 그대로 침착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위로해주고 의지할 가족이 있고 건강한 육신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어두운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지요. 불법에 의지해 몸과 마음을 다잡고 용맹정진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계속)

이인재(대구광역시 수성구)

## 화계사 들러 부처님도 만난대요

### 11일 서울 역사현장 순례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 고생 120명을 대상으로 '서울 역사현장 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서울의 불교문화 유적과 역사 현장 답사를 통해 조상들의 슬기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조계사를 거쳐, 4·19묘지, 화계사, 창덕궁, 종묘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조계사에서는 인솔

교사들과 함께 경내를 순례하며 사찰건축과 석탑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은 뒤 감상을 작성하게 된다. 또 답사가 끝난 뒤에는 경내 환경미화회를 위한 청소 봉사 활동도 가진다. 화계사에서는 국제선원을 방문해 외국인 스님들에게 법문을 듣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참가비는 1인당 2천원이며, 인솔교사를 동반할 수 있는 참가 희망자는 한 학교당 10명 내외의 참가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02-723-6165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 지역 불교문화 탐방 나선다

### 비로자나 청소년협 내년 사업 결의

(사)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지난달 26일부터 1박2일간 경주보문단지에서 '중앙임원과 지부대의원 연수'를 열고 2002년 사업예산을 3억6천7백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수련·홍보·회원관리 사업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연수에 참가한 임원들은 청소년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댄스페스티벌, 청소년 가요제, 인터넷 애니메이션 경연대회를 올해보다 한층 더 폭넓게 개최하고자 입을 모았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음악과 연극 등 문화활동 동아리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기관과 연계한 국제 청소년 교류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 학술문화 한마당 개최

### 대학종교학도련 9~10일

한국대학종교학도련(이하 한종련)은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간 감리교 신학대 여전도회관에서 '겹질을 벗겨라'는 주제로 제10회 학술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비롯해 원광대 원불교학과, 서울대 종교학과, 감신대 종교철학과 등 8개학교 9개학과 학생 3백여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종교문화의 새로운 전망'에 관한 논문발표를 갖는다. 이어 다음날에는 국악 공연, 사물놀이 등으로 구성된 문화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선옥의

## 선무 건강법 ⑩

### ●수인법-중품●

상품의 수인법이 익숙해지면, 중품을 시도한다. 수인법을 연습할 때에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항상 단전에 기를 모으고, 단전에서 손끝으로 기를 보내며 행해야 한다. 이때 단전에서부터 손끝, 척추가 하나로 연결돼 모든 경락이 하나로 통하고 있음에 집중한다.



### 엄지와 중지 불이고

### 단전서 손끝 기 보내

중품의 자세는 엄지와 중지를 자연스럽게 불이고, 나머지 손가락을 곧게 뻗는 형태다.

1. 가부좌를 틀고 앉아 단전에 기를 모은다.
2. 중품의 기본 자세에서 오른손과 왼손의 중지를 직각으로 맞붙이고, 양손등도 직각이 되게 한다. 나머지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포갠다. 중품상생의 자세다.
3. 중품의 기본 자세에서 두 손끝을 가슴 앞으로 당겨 마주보게 한다. 중품중생의 자세다.
4. 마주보고 있는 두 손 가운데 한 손을 밖으로 돌려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목과 손목이 맞닿게 한다. 중품하생의 자세다.

## 四柱推命學情解書

#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이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특약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역에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통시력, 특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강철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도 저지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정신 감성적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 13,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심풀이 대백과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비밀을 벗긴다」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 발달된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질문 응답) (해몽, 그 운명의 비법) (꿈풀이 심풀이)
- 부록 (꿈은 부부궁합)

장영우 박사 지음/신국판 /값 17,000원

### 관음역서 시리즈

1. 해서 명리진평 신국판/해서 조영수 편저/값 30,000원
2. 21C 최신 우리말 대운 만세력 4x6판/해서 조영수 편저/값 15,000원(대)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값 12,000원(대)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부 신국판/양장본/김백만 지/값 30,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 B/D 3층 T.921-8434 F.929-3470

## 다시 풀어보는 구성학의 사주팔자

문길어 선생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국내 최초의 역학 지침서

구성학이란 우주의 돌고도는 氣(氣)를 이용하여 우리의부족한 것을 보충하기(補)로 보는 미래학의 이론을 말 수 있다. 구성학을 알면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흥망을 절운으로 바꾸어 모자라는 것을 보충시킬 수 있다.

- ◆ 구성학의 비법을 소개한다
- 1. 절성이 역술인 무속인의 운명
- 2.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있는 여자의 운명
- 3. 결혼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여자의 운명
- 4.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많은 여자의 운명
- 5. 부유한 4와 4의 대충의 운명
- 7. 일백에서 구구까지의 뜻

문길어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1. 절성이 역술인 무속인의 운명
2.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있는 여자의 운명
3. 결혼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여자의 운명
4.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많은 여자의 운명
5. 부유한 4와 4의 대충의 운명
7. 일백에서 구구까지의 뜻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양장본/김백만 지/값 15,000원
11. 신도정비결 신국판/백용지 지/값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숙 지/값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철계관 신국판/양장본 전성택 지/값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김영중 편저/값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 김성진 지/값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심풀이 대백과 신국판/장영우 지/값 17,000원
17. 명가계의 기성학 비결 신국판/김영중 지/값 15,000원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 성인병의 신호탄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단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증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단(삼정)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히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 이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몰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단(삼정)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식염,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들림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옥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